

女大生の 社會的 價値觀과 衣服 着用 動機와의 關係

—서울을 中心으로—

金 京 姬 · 林 淑 子

梨花女子大學校 家政大學 衣類織物學科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Values and Clothing Motivations for a Group of Female College Students in Seoul

Kyung Hee Kim and Sook Ja Lim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ollege of Home Economics, Ewha Women's University

(1983. 6. 9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values and the clothing motivations for a group of female college students in Seoul, Korea.

Through this study, the followings were found:

1. A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the social values and the five clothing motivations: Decoration, Modesty, Protection, Belongingness, Self-Esteem.
2. A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the clothing motivations and the environmental factors concerning school: college type (coeducational college or women's college), major, grade.
3. A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the clothing motivations and the environmental factors concerning family: father's income, father's educational level, order among sisters.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설명하였다.

특히 衣服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집단은 사회적인 권위에 대하여 反抗하며 기성 세대의 가치관을 부정하고 형식이나 인습에서 탈피하려고 하며 이러한 가치관을 의복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本 研究의 目的은 사회적 가치관이 완성되는 청년 후기²⁾의 女大生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적 가치관과 衣服 着用 動機와의 相關性을 규명하고 환경, 요인에 따른 각 집단별 衣服 着用 動機를 比較 分析함으로써 本 研究결과가 衣服 着用 動機에 관한 기초 자

I. 序 論

人間은 出生직후부터 死後까지 衣服을 着用함으로써 衣服과는 不可分の 關係에 있으며 따라서 의복은 必然的 人間행동의 한 分野로서 그 기능이 重視되고 있다.

Roach¹⁾는 의복이 個人的 信念 사회적 지위나 권력, 착용자의 가치관과 생활태도를 대변하는 표현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고 Horn²⁾은 의복이 착용자의 암시적 언어(sign language)라고 표현함으로써 의복의

료가 되는 동시에 女大生 집단의 이상적인 衣生活 지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II. 理論的 背景

1. 價値觀의 定義

Gluckhohn⁴⁾은 “가치관은 자연 속에서의 人間의 위치 人間關係, 그리고 인간 對 환경 및 對人關係에 관련되는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못한 것에 대한 概念으로서 行動에 영향을 주는 一般化되고 組織化된 概念이라고 정의하였으며 Parsons⁵⁾는 여러 가지 가능한 행동 중에서 선택 기준으로 사용되는 觀念이라고 定義하였다.

이와 같이 價値觀이란 人間行動에 組織과 方向을 주는 規範原理⁶⁾로서 事物에 대한 人間의 價値판단의 기준⁷⁾이 되는 同時에 行動標準 혹은 綜合的 態度的 對象이 되는 目標 내지 標準⁸⁾이기도 하다.

2. 一般的 價値觀과 衣服 價値觀과의 관계

Lapitsky⁹⁾는 衣服이 着用者의 價値觀의 表現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Allport-Vernon의 가치관 검사지를 사용하여 일반적 가치관과 의복 가치관 사이에 긍정적인 상관 관계가 있음을 立證하였고 특히 成人 女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여자들에게 중요한 가치관이 審美性, 經濟性임을 밝혔다.

Creekmore¹⁰⁾는 Allport-Vernon의 검사지를 사용하여 女大生을 대상으로 일반적 가치관과 人間의 基本欲求 및 衣服行動 사이의 상관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심미적 가치관이 높은 집단은 衣服의 질감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경제적 가치관이 높은 집단은 衣服의 가격 관리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宗教的 가치관이 높은 집단은 衣服의 정숙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Christiansen과 Kernaleguen¹¹⁾은 Vernon의 신앙도를 측정하는 Vernon's Church Orthodoxy Scale을 사용 女大生을 대상으로 衣服의 保守主義-貞淑性 間의 상관성을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집단은 의복 습관의 보수성을 나타낸다는 결론을 내렸다.

3. 衣服 着用 動機

衣服의 기원설과 着用 動機에 관해서는 여러 分野에서 多角度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Flugel¹²⁾과 Hawes¹³⁾, Troxell and Judelle¹⁴⁾은 보호설, 장식설, 수치관념설을 주장하였고 Latzke and Hostetter¹⁵⁾는 자

기도취, 장식성, 보호성, 性的 매혹, 수치관념, 사회적 신분표시, 안락감, 생존 경쟁의 도구로서 衣服이 착용된다고 하며, Hurlock은 同性에게, Cobliner는 異性에게 매력을 주기 위하여 衣服을 착용한다¹⁶⁾고 하였다.

또 Creekmore¹⁰⁾는 Maslow의 欲求理論을 바탕으로 生理的 欲求,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욕구, 사랑 받으려는 욕구, 자기과시 및 자기실현성의 욕구, 심미성, 인식의 수단으로 의복 착용 동기를 설명하였다.

Ryan⁹⁾은 여러 학자들의 理論을 綜合하여 보호설(Protection), 장식설(aesthetics), 수치관념설(modesty), 유혹설(immodesty)을 포함한 본능설(instinct theories)과 人間 欲求 表現 動機인 충동 혹은 욕구설(drive or need theories), 사회경제적 地位 과시의 動機인 경제설(economic theories), 잠재의식표현 동기인 정신분석학설(psychoanalytical theories)로 분류하였다.

林 淑子¹⁶⁾는 의복 착용 동기를 심리육체적 및 性 문란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하는 保護性 理論(Protection theory)과 異性 및 同性 매혹을 위한 審美性 理論(aesthetic theory)과 의복 착용의 충동 억제·심리는 타인의 조롱에서 탈피하여 안정된 심리를 추구하는데 있으므로 수치관념이라는 항목대신 광범위하게 道德 및 所屬性 理論(modesty and belongingness theory)이라는 名稱을 사용하였으며 現代에 와서 Maslow의 위계 질서와 관련한 富의 誇示理論(self-esteem theory) 目的 實現性理論(self-actualization theory) 항목을 첨가함으로써 의복 착용 동기를 5가지로 분류하였다.

한편 李 蘭姬¹⁷⁾는 의복 기원설 및 착용 동기를 生體 保護說과 人體 裝飾說로 大別하였다.

4. 사회적 가치관과 衣服 着用 動機에 관한 研究

Kelley와 Star¹⁸⁾는 大學生을 대상으로 의모와 학생들의 사회, 정치적 태도와 상관성을 연구하였으며 종족평등, 외교정책에 진보적인 태도를 소유한 집단은 자유로운 분위기의 의모를, 보수적인 태도를 가진 집단은 보수적인 의모를 나타낸다는 것을 파악하여 사회적 태도와 의복 착용과의 긍정적인 상관성을 주장하였다.

Bergenger¹⁹⁾는 의모의 형태에 따라 사회에 대한 급진적 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으며, Buckley²⁰⁾는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衣服이 無言의 態度 傳達媒體임을 주장하였고 대다수의 학생 집단이 그들의 태도를 반영하는 의복을 착용하고 태도 반영에 위배되는 衣服 着用은 거부하였음을

밝혔다.

Matthews²¹⁾는 여성을 대상으로 社會的 가치관과 衣服의 傳統性과의 상관성을 연구한 결과 전통적인 사회적 가치관을 소유한 母世代는 고유 의상을 착용한 반면 가족관과 결혼관이 서구화된 子女世代는 서구 의상을 착용한다는 것을 밝혔다.

Ⅲ. 問題의 叙述

1. 研究의 目的

國內 女大生の 社會的 價値觀과 衣服着用 動機와의 相關關係를 파악함이 1차적 目的이며 환경요인에 따른 각 집단별 의복 착용 동기를 비교 분석하고자 함이 2차적 目的이다.

2. 假 說

- 1) 女大生の 사회적 가치관과 의복착용 동기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 2) 男女共學과 女子大學에 따라 의복 착용 동기는 다를 것이다.
- 3) 專攻에 따라 의복 착용 동기는 다를 것이란.
- 4) 學年에 따라 의복 착용 동기는 다를 것이다.
- 5) 父이 월수입에 따라 의복 착용 동기는 다를 것이다.
- 6) 父의 교육수준에 따라 의복 착용 동기는 다를 것이다.
- 7) 兄弟 序列에 따라 의복 착용 동기는 다를 것이다.

3. 用語 定義

社會目 價値觀(social values)---사회변화에 대한 個人의 가치판단 기준을 의미한다.

- 1) 社會風潮(social trends): 外來風潮와 金錢萬能思想을 수용하는 個人의 價値기준을 의미한다.
- 2) 人間關係(human relations): 個人爲主의 思考方式과 不信思潮를 수용하는 個人의 가치기준을 의미한다.
- 3) 大衆化(popularization): 매스컴의 機能과 역할의 重要性, 社會계층의 生成과 존재를 수용하는 個人의 가치기준을 의미한다.
- 4) 社會移動(social migration): 人口의 도시집중 경향과 海外移民 현상을 수용하는 個人의 가치기준을 의미한다.

衣服 着用 動機(clothing motivations)---衣服을 着用하게 되는 기본적인 心理狀態를 의미한다.

1) 裝飾性(decoration): 外的인 美를 추구함으로써 自己 滿足뿐 아니라 異性이나 同性으로부터의 性的 매력 획득을 위해 衣服을 착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 禮儀性(modesty) 수치심에서 신체노출을 抑制하고, 傳統的 習慣에 준거하여 衣服을 着用하는 것을 의미한다.

3) 保護性(protection): 기후, 위험한 사고나 肉體의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악령(evil sprit)이나 必要이상 的 性的 유혹과 같은 心理的 保護를 위해 衣服을 着用하는 것을 의미한다.

4) 所屬性(belongingness): 同僚 意識 造成과 소속감 획득을 위해 他人과 유사한 형태의 衣服을 着用하는 것을 의미한다.

5) 誇示性(self-esteem): 自身의 社會經濟的 地位나 身分을 誇示하기 위한 동기에서 衣服을 着用하는 것을 의미한다.

Ⅳ. 方法 및 節次

1. 道具 選定

1) 社會的 價値觀 檢査
황응연²²⁾이 제작한 한국 대학생의 가치관 검사에서 사회적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한 4개 변인 96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질문은 5단계로 평정하였다.

2) 衣服 着用 動機 檢査
Creekmore의 Composite measures of specified clothing Variables에서 채택한 문항과 국내의 선형 검사 변인을 수정 보완하고 構因의 妥當度를 고려하여 2차의 예비조사를 거친 후 本 研究者가 총 50개의 문항을 選定하였으며 각 질문은 7단계로 평정하였다.

2. 標集對象 및 資料蒐集

本 研究에서는 서울시내 男女共學 大學校 10개 여자 대학교 4개 총 14개 대학교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各 學年別로 衣類學 계열·人文·社會계열 藝·自然계열·體能 계열 등 專攻계열을 分類하여 層別標集(stratified sampling)하였으며 설문지는 1982년 10월 5일~23일 까지 75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것 중 556부의 자료만을 통계처리하였다. <표 1>

3. 資料 分析

假說을 검증하기 위하여 도수분포표를 작성한 후 Pearson의 적률 상관 계수, t-test, F-test 등을 산출

〈표 1〉 표집 대상의 학교, 전공, 학년별 분포 (N=556)

집단	구분	N%		Total
		N	%	
학 교	남 녀 공 학	259	46.6	556 (100%)
	여 자 대 학	297	53.4	
전 공	의류학계열	133	23.9	556 (100%)
	인문사회계열	135	24.3	
	자연계열	125	22.5	
	예·체능계열	163	29.3	
학 년	1 학 년	159	28.6	556 (100%)
	2 학 년	106	19.1	
	3 학 년	166	29.8	
	4 학 년	125	22.5	

하였다.

V. 結果 및 論議

1. 衣服 着用 動機 變因의 分布

衣服 着用 動機 變因의 점수분포와 평균,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衣服 着用 動機는 「禮儀性」이 가장 높은 順位를 나타냈고, 다음에 「保護性」「裝飾性」「所屬性」의 順으로

나타났으며 「誇示性」이 가장 낮은 順位로 나타났다.

「禮儀性」이 가장 높은 順位를 나타낸 것은 古來로 傳統의 習慣에 의해 禮儀를 崇尚하고 貞淑性이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해석되며 이 결과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최혜선²³⁾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保護性」은 임숙자¹⁶⁾의 연구결과에서는 가장 낮은 順位로 나타났으며, 「裝飾性」이 비교적 낮은 順位를 나타낸 것은 性的 매혹과 美증진의 欲求에서 비롯된 裝飾의 動機가 보수적 傳統의인 사회환경요인에 의해 억제되고 있음으로 해석된다.

한편 「誇示性」이 가장 낮은 順位로 나타난 것은 본 연구가 學生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경제적 측면에서 身分을 과시할 수도 없으며, 同時に 身分誇示忌避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社會的 價値觀과 衣服 着用 動機와의 相關關係

가설 1: 女大生의 社會的 價値觀과 衣服 着用 動機는 關係가 있을 것이다.

이 關係를 檢證하기 위하여 社會的 價値觀 變인과 衣服 着用 動機 變인 間의 적률상관계수(Pearson's r)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衣服 着用 動機 變인인 「裝飾性」(decoration)은 社會的 價値觀 變인인 의태풍조, 금전만능 매스컴, 사회계층, 인구이동, 이민, 불신사조와 有意的인 關係에 있다.

〈표 2〉 의복 착용 동기 변인의 점수분포 (N=556)

점수범위	장 식 성		예 의 성		보 호 성		소 속 성		과 시 성	
	N	%	N	%	N	%	N	%	N	%
10~16	3	0.54	—	—	—	—	2	0.36	10	1.80
17~22	6	1.08	—	—	1	0.18	7	1.26	24	4.32
23~28	18	3.24	4	0.72	7	1.26	28	5.04	68	12.23
29~34	54	9.71	13	2.34	21	3.78	65	11.69	99	17.81
35~40	69	12.41	28	5.04	65	11.69	114	20.50	135	24.28
41~46	129	23.20	98	17.63	143	25.72	161	28.96	102	18.35
47~52	150	26.98	154	27.70	198	35.61	119	21.40	81	14.57
53~58	89	16.01	162	29.14	101	18.17	44	7.91	22	3.96
59~64	34	6.12	78	14.03	19	3.42	13	2.34	12	2.16
65~70	4	0.72	19	3.42	1	0.18	3	0.54	3	0.54
Total	556	100	556	100	556	100	556	100	556	100
Mean	45.40		51.29		47.05		42.33		37.99	
S.D.	9.66		7.99		7.30		8.92		10.31	

〈표 3〉 사회적 가치관 변인과 의복 착용 동기 간의 상관 관계

의복착용동기변인		장식성	예의성	보호성	스속성	과시성
사회적 가치관변인						
사회 풍조	외래풍조	0.19***	-0.18***	-0.15***	0.03	0.17***
	금전만능	0.17***	-0.15***	-0.14***	-0.02	0.18***
인간 관계	개인주의	-0.01	-0.15***	-0.13**	-0.10*	0.07
	불신사조	0.11	-0.17***	-0.08	0.02	0.15***
대중 화	매스컴	4.14***	-0.08	-0.04	0.05	0.17***
	사회계층	0.22***	-0.10*	-0.11**	-0.06	0.21***
해외 이동	인구이동	0.15***	-0.08	-0.07	0.05	0.13**
	이민	0.17***	-0.09*	-0.10*	-0.02	0.19***

*p<.05 수준에서의 有意度
 **p<.01 수준에서의 有意度
 ***p<.001 수준에서의 有意度

즉 외래풍조와 금전만능의 사회적 가치관 변인이 높은 집단은 自身の 매력증진을 위해 衣服을 착용한다는 것이고, 인구이동과 해외이민 현상에 긍정적인 집단이 장식적 동기에서 의복을 착용한다는 것은 Kelley와 Star¹⁸⁾의 연구에서 外交政策에 진보적인 집단이 자유로운 분위기의 외모를 선호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 他人不信 경향의 집단이 의복의 美를 중시한다는 것은 타인의식보다는 자아도취 경향에서 의복을 착용함을 의미한다.

衣服着用 動機 변인인 「禮儀性」(modesty)은 社會的 價値觀 변인인 외래풍조, 금전만능, 개인주의, 불신사조, 사회계층, 이민과 逆相關 관계에 있다.

즉, 이러한 사회적 가치관이 지배적인 집단은 진취적이며 관습의 순응보다는 거부성을 지닌 집단이므로 정숙성 및 전통문화 이념을 주축으로 하는 의복 착용 동기 변인인 「禮儀性」과는 逆相關 관계를 보이고 있다.

衣服着用 動機 변인인 「保護性」(protection)은 社會的 價値觀 변인인 외래풍조, 금전만능, 개인주의, 사회계층과 逆相關 관계에 있다.

외래풍, 수용과 사회계층 생성에 찬성하는 집단과 개인위주의 사고방식이 강한 집단은 진취성이 높고 개성에 강조를 두는 집단이므로 의복 착용 동기변인 중 「保護性」과 逆相關 관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衣服着用 動機 변인인 「所屬性」(belonging-

ness)은 社會的 價値觀 변인인 個人主義와 逆相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個人위주의 사고방식에 반대하는 집단이 他人과의 융합 목적에서 의복 착용시에 「所屬性」을 重視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衣服着用 動機 변인인 「誇示性」(self-esteem)은 社會的 價値觀 中 외래풍조, 금전만능, 매스컴, 사회계층 이민과 유의적인 관계에 있다.

외래풍조와 금전만능의 사회적 가치관이 지배적인 집단은 개성을 강조하며 의복을 경제적인 과시 수단으로 착용하기 때문에 「과시성」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또 人口移動과 이민 현상의 사회적 가치관이 지배적인 집단은 上流層의 이민이 많은 현국내 실정에 입각하여 볼 때 상류층 집단에 속하므로, 상류층 집단이 自己表現的(self-expression)目的에서 衣服을 착용한다는 Anspach²⁹⁾의 견해와 一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前述한 바와 같이 衣服着用 動機 변인은 社會的 價値觀 변인과 유의적인 관계에 있었다. 즉 衣服着用 動機 변인인 「裝飾性」과 「誇示性」은 사회적 가치관 변인인 外來風潮, 金錢萬能, 매스컴, 社會階層, 人口移動移民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반면 「保護性」과 「禮儀性」은 外來風潮, 金錢萬能, 個人主義, 社會階層, 移民과 否定的인 關係에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고, 그러므로 가설 1은 檢證되었다.

〈표 4〉 衣服着用動機와 學校 형태와의 관계 (N=556)

의복 착용 동기 변인	남녀 공학		여자 대학		t
	M	S.D.	M	S.D.	
장식성	44.10	10.12	46.53	9.09	3.61***
예의성	51.33	7.56	51.26	8.35	0.15
보호성	47.67	6.94	46.51	7.55	3.07**
소속성	41.37	8.56	43.17	9.14	3.19
과시성	37.21	10.17	38.66	10.38	1.90

**p<.01 수준에서의 有意度
***p<.001 수준에서의 有意度

3. 衣服着用動機와 學校形態와의關係

가설 2 : 男女共學과 女子大學에 따라 衣服着用動機는 다를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男女共學 大學校와 女子大學校 집단별로 衣服着用動機 변인에 관하여 t-test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衣服着用動機 변인 中 「禮儀性」은 男女共學과 女子大學이 공통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두 집단간

에 有意差가 없었으며 「裝飾性」(p<.001)과 「保護性」 「所屬性」(p<.01)의 3변인에서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裝飾性」과 「所屬性」 변인은 女子大學의 여대생들에게 높게 나타났으며, 「裝飾性」이 여자대학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활발한 정보교환 이유로 분석되고 「所屬性」 변인이 여자대학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여자대학생들이 남녀공학의 여대생과 비교하여 依存的 성격이 강한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保護性」 변인이 男女共學의 여대생들에게 높게 나타난 것은 남학생들과의 일상적 접촉에서 야기되는 性的 保護 必要性 때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여기에 관해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증명되었다.

4. 衣服着用動機와 專攻과의關係

가설 3 : 專攻에 따라 衣服着用動機는 다를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의류학 계열, 인문 사회 계열, 자연 계열, 예·체능 계열의 專攻별로 의복 착용 동기 변인에 관하여 F-test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의복 착용 동기와 전공과의 관계 (N=556)

의복 착용 동기 변인	의류학 계열		인문사회계열		자연 계열		예·체능계열		F-ratio
	M	S.D.	M	S.D.	M	S.D.	M	S.D.	
장식성	46.61	8.28	42.65	10.71	42.97	9.28	48.54	8.91	13.65***
예의성	51.12	8.03	51.99	8.40	52.33	6.60	50.05	8.40	2.07
보호성	46.34	6.18	47.72	7.41	47.44	7.12	46.78	8.06	1.53
소속성	42.64	8.72	42.12	8.42	42.88	8.97	41.84	9.39	0.47
과시성	38.31	9.45	35.34	11.55	36.39	9.56	41.14	9.55	9.84***

***p<.001 수준에서의 有意度

〈표 6〉 의복 착용 동기와 학년과의 관계 (N=556)

의복 착용 동기 변인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F-ratio
	M	S.D.	M	S.D.	M	S.D.	M	S.D.	
장식성	46.41	8.95	44.11	10.77	44.55	10.55	46.33	7.91	1.75
예의성	50.41	8.73	51.93	8.19	52.51	7.47	50.65	7.31	1.99
보호성	46.41	7.64	47.86	6.77	47.26	7.35	46.91	7.13	0.72
소속성	42.40	8.89	41.35	9.15	42.74	8.82	42.54	8.83	0.69
과시성	38.82	9.88	37.77	10.75	36.43	11.08	39.18	9.04	2.68*

*p<.05 수준에서의 有意度

〈표 7〉 의복 착용 동기와 父의 월수입과의 관계

(N=550)

의복 착용 동기 변인	父의 월수입 25만원미만		25~50 만원		50~75 만원		75~100만원		100만원이상		F-ratio
	M	S.D.	M	S.D.	M	S.D.	M	S.D.	M	S.D.	
장식성	37.15	7.83	43.34	9.52	44.41	6.48	47.12	10.05	48.99	7.95	10.90***
예의성	53.03	7.99	52.40	8.26	51.32	7.57	51.13	8.14	49.61	7.72	2.11
보호성	49.85	5.62	48.97	6.75	46.73	7.54	45.69	7.09	46.07	7.49	4.48***
소속성	42.79	7.39	42.36	9.21	42.93	8.15	41.36	8.83	42.52	9.80	0.73
과시성	31.15	7.83	35.44	10.59	37.15	9.49	40.10	10.14	41.33	9.98	9.63***

***p<.001 수준에서의 有意度

〈표 8〉 의복 착용 동기와 父의 교육수준과의 관계

(N=556)

의복 착용 동기 변인	父의 교육수준 국		중·고 졸		대 졸(이상)		F-ratio
	M	S.D.	M	S.D.	M	S.D.	
장식성	40.07	6.30	43.93	10.18	46.05	9.42	16.82***
예의성	52.07	7.76	51.80	8.14	51.09	7.94	22.15***
보호성	48.64	2.10	47.83	6.48	46.73	7.62	23.80***
소속성	41.79	4.20	41.87	8.60	42.53	9.10	12.18***
과시성	32.36	6.75	36.97	11.36	38.49	9.88	9.36***

***p<.001 수준에서의 有意度

專攻別 비교 결과는 「裝飾性」과 「誇示性」의 2개 변인에서 有意인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두 변인 모두 예제능 계열이 가장 높고 衣類학 계열, 自然 계열, 人文·社會 계열의 順位를 보였다. 體能 계열 학생들에게 특히 「裝飾性」과 「誇示性」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이 집단의 강한 美추구 경향과 個性的 표현욕구의 반영으로 해석되며 그러므로 가설 3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5. 衣服 着用 動機와 學年과의 관계

가설 4: 學年에 따라 衣服 着用 動機는 다를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1, 2, 3, 4. 각 학년별로 의복 착용 동기 변인에 관하여 F-test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학년별 차이는 「誇示性」변인에서 有意한 관계를 보였으며(p<.05) 4학년이 가장 높고, 1학년, 2학년, 3학년의 順으로 나타났으며, 4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學生의 身分에서 社會人의 身分으로 변화하는 過渡期的 현상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결과로 가설 4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6. 衣服 着用 動機와 父의 月收入과의 관계

가설 5: 父의 月收入에 따라 衣服 着用 動機는 다를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父의 月收入別로 의복 착용 동기 변인에 관하여 F-test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의복 착용 동기와 父의 月收入과의 관계에서는 「裝飾性」 「保護性」 「誇示性」의 3변인이 유의한 차를 나타냈다. (p<.001)

「裝飾性」과 「誇示性」 변인은 父의 月收入이 많을수록 높은 順位를 보였으며 이는 父의 月收入이 많은 경제적 상류층 집단이 自我滿足과 경제적 지위 과시의 수단으로 衣服을 着用하는 경향으로 해석된다. 또 「保護性」 변인은 父의 月收入이 적은 하류계층에서 높은 순위를 보였으며 이는 하류 계층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自己 表現性(self-expression)과 멋(chic)보다는 실용성(use)을 重視한다는 Anspach¹⁹⁾의 견해와도 일치된다. 그러므로 가설 5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7. 衣服 着用 動機와 父의 教育水準과의 관계

가설 6: 父의 教育수준에 따라 의복 착용 동기는 다를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國卒, 中高卒, 大卒(以上)으로 父의 教育수준을 分類하여 각 의복 착용 동기 변인에 관하여 F-test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표 8〉과

〈표 9〉 의복 착용 동기와 형제 서열과의 관계

(N=556)

의복 착용 동기 변인	형제서열		장		녀		막		내		기		타		F-ratio
	M	S.D.	M	S.D.	M	S.D.	M	S.D.	M	S.D.					
장 식 성	46.94	10.11	44.48	10.14	45.13	8.79	12.28***								
예 의 성	51.76	7.64	50.61	7.86	51.04	8.45	22.88***								
보 호 성	47.10	7.52	47.15	7.07	46.96	7.12	22.01***								
소 속 성	43.32	8.79	39.84	8.41	42.17	9.09	16.18***								
과 시 성	38.35	10.28	37.95	10.34	37.52	10.34	7.18***								

***p<.001 수준에서의 有意度

같다.

각 집단별 父의 教育수준과 의복 착용 동기와와의 관계는 5개의 변인에서 有意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5가지 변인 中 「裝飾性」, 「所屬性」, 「誇示性」은 父의 教育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 분포를 보였다. 父의 教育수준이 높은 가정의 자녀들에게 특히 「裝飾性」과 「誇示性」 변인이 높게 나타난 것은 가정의 社會的地位 誇示 경향으로 해석되며 父의 教育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衣服의 禮儀性和 機能的인 면이 강조되므로 「禮儀性」 「保護性」 변인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가설6은 긍정되었다.

8. 衣服 着用 動機와 兄弟序列과의 관계

가설 7 : 형제서열에 따라 의복 착용 동기는 다를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장녀, 막내, 기타의 형제서열로 분류하여 각 의복 착용동기 변인에 관하여 F-test를 산출하였고, 형제서열 分類時에는 장녀와 막내를 뺀 모든 서열을 기타에 포함시켰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형제서열별 의복 착용 동기는 5가지 변인에서 차이를 나타냈으며 (p<.001) 「保護性」을 제외한 「裝飾性」 「禮儀性」 「所屬性」 「誇示性」 변인이 모두 長女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裝飾性」과 「誇示性」 변인이 長女에게서 높게 나타난 것은 長女에게 부모의 愛情과 관심이 集中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保護性」 변인이 막내에게 높게 나타난 것은 保護的인 성장 환경과의 관련성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설 7은 긍정되었다.

VI. 結論 및 提言

本 研究에서 提示한 假說의 통계적 검증 결과로 다

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女大生들의 社會的 價値觀과 衣服 着用 動機와는 有意的인 상관관계가 있다. 즉 「裝飾性」과 「誇示性」의 衣服 着用 動機 변인은 社會的 가치觀 변인과 肯定的인 有意關係에 있으며 「禮儀性」과 「保護性」 「所屬性」의 衣服 着用 動機 변인은 社會的 價値觀 변인과 否定的인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女大生들이 重視하는 衣服 着用 動機변인의 順位는 「禮儀性」 「保護性」 「裝飾性」 「所屬性」 「誇示性」의 順으로 나타났다.

學校 環境 要因과 衣服 着用 動機 변인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男女共學과 女子大學, 專攻間, 學年間 比較를 하였으며 男女共學의 女大生과 女子大學의 女大生과의 의복 착용 동기를 비교한 결과 女子大學의 女大生은 「裝飾性」과 「所屬性」 변인이 높았고 男女共學의 女大生들은 「保護性」 변인이 높게 나타났다.

專攻別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裝飾性」과 「誇示性」 변인에서 藝·體能 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의 의류학 계열이었고, 자연 계열, 인문 사회 계열의 順位였으며, 學年別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誇示性」 변인이 意味있는 차이를 보여 4학년이 가장 높았고 1학년, 2학년, 3학년의 順位로 나타났다.

家庭 環境 要因과 의복 동기변인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父의 月收入, 教育水準, 兄弟序列別로 비교하였으며 父의 月收入別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裝飾性」, 「保護性」, 「誇示性」의 3변인에서는 意味있는 차이를 보여 「裝飾性」과 「誇示性」은 父의 月收入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保護性」은 父의 月收入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父의 教育水準別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裝飾性 「禮儀性」 「保護性」 「所屬性」 「誇示性」 5개 변인 모두가 意味있는 차이를 보여 「裝飾性」 「所屬性」 「誇示性」 변인은 父의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禮儀性」과 「保護性」 변인은 父의 教育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兄弟序列別 차이를 비교한 결과도 5개의 변인 모두가 意味있는 차이를 보여 「裝飾性」 「禮儀性」 「所屬性」 「誇示性」의 4개 변인은 長女가 「保護性」 변인은 막내가 높게 나타났다.

以上과 같은 結論으로 女子 大學生의 의복 착용 동기와 사회적 가치관, 학교, 환경 요인 및 가정 환경 요인과의 관련성이 검증되었으므로 이 연구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提言하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女大生들이 重視하는 의복착용 동기는 「禮儀性」으로 나타났으나, 父의 月收入이 많고 父의 교육수준이 높은 가정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子女일수록 의복의 「裝飾性」과 「誇示性」에 대한 착용 동기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매스컴의 영향과 부유층 자녀들의 지나친 誇示慾의 결과로 해석되므로 교육받은 상류층 자녀들의 올바른 “衣服觀”이 진실히 요구된다.

또 特定 集團의 校服自律化를 포함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당면하고 있는 衣生活指導를 위해서는 각 집단의 지배적인 가치관, 학교 환경 요인 및 가정 환경 요인 분석의 선행 실사가 요구되며 이 자료를 기초로 각 집단의 특성을 理解함으로써, 앞으로 발생될 父母 子女間의 의복 선택에 대한 의견 충돌의 問題點을 예방하고, 의생활 교육 담당자와 담당 기관 및 의류 생산 관련업자의 理想的인 衣生活 지도와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금번 製作한 衣服 着用 動機檢査·道具가 多 角度로 여러 계층 집단에 확대 적용됨으로써 信賴度 妥當度가 보장되어 의복행동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율적이고 가치있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參 考 文 獻

- 1) Roach, M.E. & Eicher J.B.,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Y: John Wiley & Sons, Inc. 6, (1965)
- 2) Horn, M.J., The Second Skin, 2nd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1, (1975)
- 3) 김정휘, 현대 청년 심리학, 한국 신교육전서 제19권, 서울: 학문사, 66, (1979)
- 4) Kluckhohn C. and others, Values and Value Orientations in the Theory of Action,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ed. Parsons. T. and E.A. Shils, N.Y: Harper and Row, 411, (1962)
- 5) Parsons. T. The Social System p.12를 인용한

- 高永復, 사회 심리학, 서울: 進明出版社, 97 (1971)
- 6) Williams, R.M. Jr., American Society 374~75를 인용한 金仁子, 黃 應淵, 한국대학생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아시아 문제 연구소 9, (1974)
- 7) 千年壽, 가치관의 형성과 매스미디어의 힘 46~53을 인용한 김인자, 8, (1974)
- 8) Newoomb. T.M., Social Psychology. 130,을 인용한 김인자, 황용연, 8, (1974)
- 9) Ryan, M.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Y: Holt, Rinehart & Winston, Inc., 102~103, (1966)
- 10) Creekmore, A.M., Clothing Behaviors and Their Relation to General Values and to the Striving for Basic Needs, Unpublished Ph.D. Thesis, (1963)
- 11) Christiansen, K. & Kernaleguen. A., Orthodoxy and Conservatism-Modesty in Clothing Selection, *Journal of Home Economics* 63, 251-55 (1971)
- 12) Flugel, J.C., The Psychology of Clothing, N.Y: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15~52, (1971)
- 13) Hawes. E., Why is a Dress N.Y: The Viking Press, 30~43, (1942)
- 14) Troxell. M.D. and Judelle. B, Fashion Merchandising, 2nd. ed., McGraw-Hill, Inc.
- 15) Latzke., A. and Hostetter, H.P. The Wide World of Clothing, N.Y: The Ronald Press, Co., 3~25, (1968)
- 16) 林淑子, 의상 선택의 동기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 연구원 논총 「제18집」, 137~48, (1976)
- 17) 이난희, 의복의 기원에 관한 연구, 先史시대론 중심으로, 성신여자사범대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 18) Kelley and Star, Dress and Ideology in Lind. C., Social-Political Attitudes and Appearance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Wisconsin 34, (1974)
- 19) Bergenzer, J., Campus Dress as Communication in Lind. C., p. ocit. 33, (1974)
- 20) Buckley, H.M., Clothing As a Non-Verbal Communicator in Lind., C. op. cit. 34, (1974)

- 21) Mattews, L.B. Relations Between Traditionalism of Dress and Social Values of Ghanaian Wome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7, 389~98, (1979)
- 22) 황응연, 대학생의 가치관 및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울: 익문사 105, (1975)
- 23) 최혜선, 의복 행동과 사회적 안전감—불안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 시내 女高生을 中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1)
- 24) Anspach, K. Clothing Selection and the Mobility Concept, *Journal of Home Economics*, 53, 428~30, (1961)